

통일 위한 남북문학의 창조적 모험

문화특집 — 통일문학의 기본 방안 고찰

통일문학의 길은 어떻게 찾아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학의 문학을 오늘날 가장 중요한 민족사적 과제이며 민족문화의 중심과정을 창조하되만 실체 그 길잡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의 가장 큰 이유는 분단이 초래된 지 벌써 45년이 흐르면서, 남·북한간의 문화는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지표와 이념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이질성은 아직 우리에게 남·북한의 문학을 하나의 민족문화로서는 단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통일문제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우연한 사태로써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간의 깊이있는 이해와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낼 때 진정한 축적의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란 전이 하나 있으나 뒤에 갈라져서 서로 독립된 나라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통일문학의 길은 어떻게 찾아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학의 문학을 오늘날 가장 중요한 민족사적 과제이며 민족문화의 중심과정을 창조하되만 실체 그 길잡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의 가장 큰 이유는 분단이 초래된 지 벌써 45년이 흐르면서, 남·북한간의 문화는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지표와 이념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이질성은 아직 우리에게 남·북한의 문학을 하나의 민족문화로서는 단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통일문제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우연한 사태로써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간의 깊이있는 이해와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낼 때 진정한 축적의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란 전이 하나 있으나 뒤에 갈라져서 서로 독립된 나라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통일문학의 길은 어떻게 찾아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학의 문학을 오늘날 가장 중요한 민족사적 과제이며 민족문화의 중심과정을 창조하되만 실체 그 길잡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의 가장 큰 이유는 분단이 초래된 지 벌써 45년이 흐르면서, 남·북한간의 문화는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지표와 이념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이질성은 아직 우리에게 남·북한의 문학을 하나의 민족문화로서는 단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통일문제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우연한 사태로써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간의 깊이있는 이해와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낼 때 진정한 축적의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란 전이 하나 있으나 뒤에 갈라져서 서로 독립된 나라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통일문학의 길은 어떻게 찾아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학의 문학을 오늘날 가장 중요한 민족사적 과제이며 민족문화의 중심과정을 창조하되만 실체 그 길잡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의 가장 큰 이유는 분단이 초래된 지 벌써 45년이 흐르면서, 남·북한간의 문화는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지표와 이념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이질성은 아직 우리에게 남·북한의 문학을 하나의 민족문화로서는 단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통일문제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우연한 사태로써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간의 깊이있는 이해와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낼 때 진정한 축적의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란 전이 하나 있으나 뒤에 갈라져서 서로 독립된 나라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근래의 문학 작품들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지배체제 유지에 이용된 문학의 이질화 탈지배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통일점 찾아야

이인모

뜨겁게 일고 있는 철 인민군 총군기가 인민보의 수기 '이인모'가 월간 '달'지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개인의 일대기를 넘어서 한국현대사의 주요 대목들을 포괄하고 있다. 즉, 백두산항일유적의 출몰과 일제시기 사회주의자들과 비밀조직 활동, 50-80년대까지 좌익수들이 겪은 엄혹한 수형생활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월간 '이인모'는 6·25전쟁의 와중에 모토가 되어 사회주의 이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34

신간안내

년의 목표를 히로고 지난 88년 철구년안감호소에서 출소. 현재 김해군 김해읍의 목지가 김해신문사에서 투병중이다.

복녜 작가 백남룡 소설 '빛', 실릴터에서 출간

복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빛'이 도서출판 '실릴터'에서 출간됐다. '빛'은 88년 복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복녜사회의 이혼률 제를 다루고 있다. 함께 실려 있는 단편 '생명'은 교육문제를 소

신간안내

년의 목표를 히로고 지난 88년 철구년안감호소에서 출소. 현재 김해군 김해읍의 목지가 김해신문사에서 투병중이다.

복녜 작가 백남룡 소설 '빛', 실릴터에서 출간

복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빛'이 도서출판 '실릴터'에서 출간됐다. '빛'은 88년 복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복녜사회의 이혼률 제를 다루고 있다. 함께 실려 있는 단편 '생명'은 교육문제를 소

신간안내

년의 목표를 히로고 지난 88년 철구년안감호소에서 출소. 현재 김해군 김해읍의 목지가 김해신문사에서 투병중이다.

복녜 작가 백남룡 소설 '빛', 실릴터에서 출간

복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빛'이 도서출판 '실릴터'에서 출간됐다. '빛'은 88년 복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복녜사회의 이혼률 제를 다루고 있다. 함께 실려 있는 단편 '생명'은 교육문제를 소

신간안내

년의 목표를 히로고 지난 88년 철구년안감호소에서 출소. 현재 김해군 김해읍의 목지가 김해신문사에서 투병중이다.

복녜 작가 백남룡 소설 '빛', 실릴터에서 출간

복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빛'이 도서출판 '실릴터'에서 출간됐다. '빛'은 88년 복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복녜사회의 이혼률 제를 다루고 있다. 함께 실려 있는 단편 '생명'은 교육문제를 소

신간안내

년의 목표를 히로고 지난 88년 철구년안감호소에서 출소. 현재 김해군 김해읍의 목지가 김해신문사에서 투병중이다.

복녜 작가 백남룡 소설 '빛', 실릴터에서 출간

복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빛'이 도서출판 '실릴터'에서 출간됐다. '빛'은 88년 복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복녜사회의 이혼률 제를 다루고 있다. 함께 실려 있는 단편 '생명'은 교육문제를 소

신간안내

년의 목표를 히로고 지난 88년 철구년안감호소에서 출소. 현재 김해군 김해읍의 목지가 김해신문사에서 투병중이다.

복녜 작가 백남룡 소설 '빛', 실릴터에서 출간

복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빛'이 도서출판 '실릴터'에서 출간됐다. '빛'은 88년 복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복녜사회의 이혼률 제를 다루고 있다. 함께 실려 있는 단편 '생명'은 교육문제를 소

신간안내

년의 목표를 히로고 지난 88년 철구년안감호소에서 출소. 현재 김해군 김해읍의 목지가 김해신문사에서 투병중이다.

복녜 작가 백남룡 소설 '빛', 실릴터에서 출간

복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빛'이 도서출판 '실릴터'에서 출간됐다. '빛'은 88년 복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복녜사회의 이혼률 제를 다루고 있다. 함께 실려 있는 단편 '생명'은 교육문제를 소

결국 이젠, “날치기”인가?

8월 18일

그날 베포된 “서강학보”에서 학생들은 학생기자들의 기사를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도 제호 옆 편집국장의 이름과 함께 빠져 있었다. 다만, 서강대 교정에는 서강학우들이 쓴 성명서가 나뉘어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그 이유를 낸다고 해도, 저희는 학생기자들의 편집권을 빼앗아 주간교수님의 의도에 걸맞은 신문을 만들고, 그 것이 ‘서강학보’라는 제호를 사용한 행위를 용납하려고 볼 수 없습니다... 서강학보사 사규를 아예 무시하고 혼자서 신문을 만들겠다는 주간교수님의 태도는 언론보조비를 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도용하는 행위이고 대학공동체를 깨뜨리는 의도에 다름아닙니다!”

그렇다!

대학신문의 실제주인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언론탐과 서강대학에서 시작된 언론 날치기 / 이제 대학신문의 주인인 학생들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막아야 한다.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추구하는 배우 '회춘'의 주연배우 박성룡(신문방송·91)군

신문방송학과 연극 문화부가 지난 26일부터 3일간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 6회 정기공연인 서사극 '회춘'을 무대에 올렸다. '회춘'의 주연배우인 박성룡(신문·91)군을 만나보았다. 박군은 경상도 사투리의 구수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평소 연극에 관심을 가졌던 박군은 과거의 특성에 맞춰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예비연출을 하기 위해 사와했다고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박군은 작년 제 5회 공연 '달리진 세상'에서 자유사자 역할을 맡아 자신의 숨은 끼를 드러내 보여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올해에도 주연을 맡게 되었다. 자유연방의 성격과 박군이 1년이 지난 지금의 연극에 대해 말하니 이렇듯 그는 기본적으로 연극이 사랑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연극은 관객과 호흡하며 주연의 동요를 느낄 수 있고, 연극의 매력을 '미오'와 같다고 표현한 박군은 연극과정이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다 공연 후의 허무감 때문에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의 흥분감과 희노와 함께 싶은 일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다시 그를 무대에 서게 했다. 주연배우를 맡던 당시를 회상했다.

'회춘'은 의학계 이혼의 학생들에 의해 준비되어 연극과정에선 연출을 무려워(?) 않아 연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많이 자식들을 부르며만 하는 아바지역을 맡은 박군은 연출자 임정수(신문·91)군에게 주배들과 함께 연기에 대해 흥분을 들을 때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대에 오르면 항상 처음이란 기분으로 긴장”

자신이 주배들을 잘 보낼지 걱정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없지 않다고 한다.

“회춘”의 주연배우인 박성룡(신문·91)군을 만나보았다. 박군은 경상도 사투리의 구수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평소 연극에 관심을 가졌던 박군은 과거의 특성에 맞춰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예비연출을 하기 위해 사와했다고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박군은 작년 제 5회 공연 '달리진 세상'에서 자유사자 역할을 맡아 자신의 숨은 끼를 드러내 보여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올해에도 주연을 맡게 되었다. 자유연방의 성격과 박군이 1년이 지난 지금의 연극에 대해 말하니 이렇듯 그는 기본적으로 연극이 사랑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연극은 관객과 호흡하며 주연의 동요를 느낄 수 있고, 연극의 매력을 '미오'와 같다고 표현한 박군은 연극과정이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다 공연 후의 허무감 때문에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의 흥분감과 희노와 함께 싶은 일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다시 그를 무대에 서게 했다. 주연배우를 맡던 당시를 회상했다.

'회춘'은 의학계 이혼의 학생들에 의해 준비되어 연극과정에선 연출을 무려워(?) 않아 연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많이 자식들을 부르며만 하는 아바지역을 맡은 박군은 연출자 임정수(신문·91)군에게 주배들과 함께 연기에 대해 흥분을 들을 때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결국 이젠, “날치기”인가?

8월 18일

그날 베포된 “서강학보”에서 학생들은 학생기자들의 기사를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도 제호 옆 편집국장의 이름과 함께 빠져 있었다. 다만, 서강대 교정에는 서강학우들이 쓴 성명서가 나뉘어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그 이유를 낸다고 해도, 저희는 학생기자들의 편집권을 빼앗아 주간교수님의 의도에 걸맞은 신문을 만들고, 그 것이 ‘서강학보’라는 제호를 사용한 행위를 용납하려고 볼 수 없습니다... 서강학보사 사규를 아예 무시하고 혼자서 신문을 만들겠다는 주간교수님의 태도는 언론보조비를 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도용하는 행위이고 대학공동체를 깨뜨리는 의도에 다름아닙니다!”

그렇다!

대학신문의 실제주인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언론탐과 서강대학에서 시작된 언론 날치기 / 이제 대학신문의 주인인 학생들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막아야 한다.

‘문밖사람들’ 정기공연

관동대지진 학살다귀

분리대 연극공연이 ‘문밖사람들’이라는 3일부터 5일까지 교내 강당에서 제1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에 상연되는 작품은 ‘문밖사람들’이다. (원작: 김의경)은 현재의 관점에서 관동대지진 이후 학살사건을 살펴봄으로써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한민족의 미래를 대변하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1992년 8월 31일 (월요일)에 공연된다.

‘회춘’의 주연배우 박성룡(신문방송·91)군

다 공연 후의 허무감 때문에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의 흥분감과 희노와 함께 싶은 일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다시 그를 무대에 서게 했다. 주연배우를 맡던 당시를 회상했다.

'회춘'은 의학계 이혼의 학생들에 의해 준비되어 연극과정에선 연출을 무려워(?) 않아 연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많이 자식들을 부르며만 하는 아바지역을 맡은 박군은 연출자 임정수(신문·91)군에게 주배들과 함께 연기에 대해 흥분을 들을 때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문밖사람들’ 정기공연

관동대지진 학살다귀

분리대 연극공연이 ‘문밖사람들’이라는 3일부터 5일까지 교내 강당에서 제1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에 상연되는 작품은 ‘문밖사람들’이다. (원작: 김의경)은 현재의 관점에서 관동대지진 이후 학살사건을 살펴봄으로써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한민족의 미래를 대변하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1992년 8월 31일 (월요일)에 공연된다.